

“기준액 매년 높아 수의계약 남발 초래”

시의회 '시교육청 행정사무조사 특위' 본격 활동 명시이월금 누락 등 기초 회계부터 총체적 부실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근·이하 조사특위)가 9일 부교육감 등 시 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특위는 이날 그동안 서류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의계약 범위금액 상향 변경, 일선 학교 수의계약 남발, 설계에 특정업체 품명 명시 후 구매, 세입과 세출 불일치, 수익자부담 경비 회계처리 불투명, 목적사업비 전용, 불합리한 인사제도 및 부적격 교원배치 등에 대해 집중

질해왔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광주시 교육청이 수의계약 범위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는 물론 물품구입에 이르기까지 수의계약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 조사결과 시 교육청은 2006년과 2007년 500만 원 미만인 수의계약 범위를 2008년 1000만원 이하로, 2009년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 위원들은 “이 때문에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2010년 학교 시설개선사업 설계용역 현황 조사결과 총 166건 중 86.7%인 144건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1%인 3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Y 업체는 이 기간 41건 중 11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구매 내역서에 특정업체 품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한 학교가 일부 발견됐으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학교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물론 명시이월금을 누락시키는 등 가장 기초적인 회계관리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시 교육청이 등급별 기준을 초과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특수학교에 일반 교사를 배치하는 등

의 인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했다.

위원들은 “특수학교 자격증 교원이 있음에도 특수학교에 일반교사를 배치하고, 체육특기자 교원을 채용한 뒤 육성 종목과 무관한 학교에 배정하고 있다”며 “교사 1인당 1200만원을 들어 연수를 시행하고도 연수와 무관하게 교과담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이어 “이미 대규모 택지가 개발된 신창, 수완, 신가, 운남지구 등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달 말에 활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제도 개선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추밭 갈아 엮는 독일 농부
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니더-에를렌바흐에서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심은 수천포기의 상추를 갈아 엮고 있다. 유럽에서 장출해성 대장균(EHEC) 감염이 확산되면서 최소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채소류는 독일에서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한·러 정부, 나로호 실패 규명 나선다

기존 민간조사위와 별도 이달중 공동조사단 구성

한국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의 2차 발사 실패 원인 규명에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직접 나선다.

이는 지난해 2차 발사 실패 직후 원인 분석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스 관계자로 구성된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를 꾸렸지만 1년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달 중 러시아 연방우주청과 한국 교과부 차원의 한·러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 조사에 착수한

다고 밝혔다. 기존 FRB의 활동은 잠정 중단된다.

양국 정부는 각각 15명 내외의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나로호 2차 발사 조사위원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공동조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단 운영지원과 청구 역할을 맡게 된다.

두 나라는 먼저 추가 검증시험 및 자체조사를 각각 실시한 뒤 7월 말께 한·러 공동조사단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복수의 원인을 제시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

출 계획이다.

나로호 3차 발사는 원인규명과 함께 가능성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해 충분한 개선조치를 도출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발사 성공을 위한 사전준비와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나로호 3차 발사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함께 공개된 ‘나로호 2차 발사 조사위원회’의 잠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5시11분 발사된 나로호는 이륙 후 약 136.3초에 1차 충격(진동)이 발생했고, 약 1초 뒤인 137.3초에 2차 충격(내부폭발)으로 인한 원격측정이 중단됐고, 결국 임무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청와대, 재추진 키로

청와대는 8일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의약품 분류논의를 통해서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OTC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가정상비약의 경우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작용 우려가 거의 없는 가정상비약은 슈퍼 판매를 우선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약사법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5·18 모독 김현욱 평통부위원장 임명 철회를”

민주 광주시당 ‘유네스코 등재 반대 주역 안돼’

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민주평통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현욱 전 의원은 ‘1980년 광주학살은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까지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운동을 전개한 장본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평통부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김 전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반미, 좌익 단체’로 비난한 인물로, 투쟁적인 대북 인식을 지닌 사람이 민주평화통일 정책을 구성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도록 돼 있는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5·18의 숭고한 정신과 광주와 호남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응식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정부가 매우 투쟁적인 대북 인식을 지닌 김 내정자를 민주평화통일 정책을 구성하고 자문하는 헌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인사를 뛰어넘어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광주 정신을 폄하하고 모독한 부적절한 인사를 평통 부의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광주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예산편성권 국회로 가져와야”

박희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박희태 국회의장은 9일 “예산편성권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만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편성권은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며 “그래야 권력분립 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재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며 “국회가 9월이라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민과 약자를 위한 국회의 변화에 앞장서겠다”며 “청소용

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일반 계약직의 연구직화, 전문계약직의 일반직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높아진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에 맞춰 해외 자원외교 및 한류 돌풍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 대진출에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초등생도 ‘나만의 인공위성’ 띄운다

교과부, 초·중·고·대학생 초소형위성 경연대회

내년부터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스스로 만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초소형위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위성은 무게가 20kg 이하인 위성으로, △무중력 생화학·의학 실험 △지진감시 △우주탐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199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 과학기술 주

립대학과 스탠퍼드대학이 각각 개발한 ‘큐브셋(가로·세로·높이 각 10cm, 1kg)’과 ‘켄셋(음료수 캔 크기, 600g)’ 등이 대표적 초소형위성이다.

교과부도 이에 착안해 초·중·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초소형위성 경연대회를 준비한다.

우선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해마다 ‘저변확대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위성 설계(디자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뽑힌 우수 작품에 교육용 위성제작 키트나 부품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승정리 역에서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 시청
지하철 호대역 3.4번출구 ↓ 시내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볼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점심 특선 17,000원
유전 특점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 중심사
↓ 승정리역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제2순원도로 화순
← 두입지구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